CRITICISM 비 평

장석교회/ 최영집作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 한국교회건축의 토착화를 위한 재실험
鄭時春 /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

□ 긍정과 부정의 긍정과 부정
金聖雨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 교회 건축에 있어서 신앙과 문화
李勇男 / 장석교회 목사

한국교회 건축의 토착화를 위한 재실험

A Re-experiment for Architectural Localization of Korean Christian Church

鄭時春/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ung Shi-Choon

선교 2세기에 접어든 한국의 개신교는 그동안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한세기의 선교 전략에서, 질적성장으로 그 목표를 수정해 가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의 문제는 닫힌교회로부터 열린 교회에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교회가 '신을 벗어야하는 성스러운 영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눔의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서구 문화를 지고의 선으로 지켜왔던 태도로 부터,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로 변화하면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토착화라는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 교회 건축의 모습도 교회의 변화에 적응해 가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장석교회의 건축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과 실험이 보여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가는 토착화의 문제를 장석교회에서 한국 고건축의 형태를 직설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건축문화의 전통계승에 관한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온 과정에서, 그리고 서구의 건축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고건축형태의 직설적 인용이 전통계승의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쩌면 무모하리 만큼 철저한 복제의 재 실험은 우리를 아연케한다. '전통문화의 계승'이란 물질 문명의 재현이 아닌, 정신문화의 계승이며 복고가 아닌, 새로운 창조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 건축의 '전통계승'이라는 과제가 한국 건축계를 압박해 왔고, 서구에서 사용해온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의 현대건축에 적용, 실험되어 왔으며, 특히 장석교회와 유사한 소위, 신고전주의적 수법들이 정부주도하에 무차별하게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대부분의 경우가 건축 디자인의 기초원리 조차도 무시한 채로 감상주의적 흉내에 그쳐 버려, 과연 직설적 인용방법이 어느만큼 가능한 것인가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석교회의 시도는 매우 다른점을 찾을 수가 있다.

즉, 시대, 생활, 감정, 기술, 재료 등이 전혀 다른 현대에 고건축형태를 재현하는 문제를 별도의 논의로 한다면, 여러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첫째로, 이 부지는 그 형세가 약하기는 하나 배산 임수의 형국을 가지고 있어 배후에 있는 야산의 숲이 건물의 배경이 되고 그 앞에 하천과 하천 제방의 버드나무 군이 바탕을 이루어 자연과 잘 어울어지고 있음을 들수 있다.

둘째로, 내부의 기능과 잘 결합시키면서 분절시킨 3개의 매스와 하나의 탑이 한국 전통건축의 스케일과 비례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높이로 어울어지는 군집(群集) 형태는 이제까지 시도된 유사한 많은 예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셋째로, 이렇게 구성된 매스들을 통해 외부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시도가 주로 형태구성에 주력하고, 한국 고건축의 또다른 많은 공간적 가능성을 놓친 점은 매우 아쉽다.

한국 고건축은 형태에 관한한, 오랫동안 하나의 유형을 기본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오히려 자연과 건축, 건물과 건물, 건물과 마당, 마당과 마당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상징성이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인' 이라면, 교회 건축은 형태의 문제 못지 않게, 공간 또는 장소로서의 역할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장석교회의 경우 두개의 서로 다른 레벨의 공간 즉, 후면의 옥외 주차장과 전면 건물의 옥상부분이 한국적 공간이 될수 있었을 것 같다.

특히, 옥외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둘러싸여 아늑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바닥재료와 패턴, 화단 등이 매우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주일 대 예배시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담장과 정자, 몇개의 의자와 구조물의 디자인을 통해, 그리고 뒷산과의 공간적 연결을 통해 전통적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접근이 불편하기는 하나, 건물 옥상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진 장소이다.

더욱이 작가와 건축주의 일치된 의도가 중앙 팔각정의 형태를 '쉼'의 상징으로 동의 했다면, 단지 '상징'의 의미를 넘어 '장소'로서의 기능 부여가 필연이라고 생각된다. 두개의 서로 다른 축을 가진 팔작 지붕과 하나의 팔각지붕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부지 배후의 숲을 차경하면서,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훌륭한 '쉼'과 나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3개의 지붕 추녀 밑은 한국 고건축의 추녀 밑, 툇마루 공간의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형태의 문제에서 또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차용한 형태의 이미지에 관한 것이다. 작가가 인용한 형태는 한국 고건축중에서 성곽(城廓)건축의 유형에 속한다. 성곽 건축이 본래 방어적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그 안을 밖으로부터 구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본다면, 그리고 고건축의 형태 차용이 기독교의 토착화의 상징으로 본다면, 둘사이에 모순이 생긴다. 즉, 상징이란 물리적 형태 만이 아니라, 그 내용 즉 기능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비록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대 건축임을 감안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건축 형태의 차용은 장석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대예배실에서도 어어지고 있다. 즉, 대예배실 전면부분 양측벽에는 6개의 완자형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난간벽에는 안상형의 문양이 그래픽수법으로 첨가되어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내부에로 주제를 연결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여 높이 살만하다. 이러한 주제가 복도등의 공용공간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공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한편, 교회의 토착화라는 과제에 대하여,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간/장소와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일 것이다.

계획된 프로그램은 계획된 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자유로운 만남은 계획된 프로그램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교인들 끼리의 열린 만남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석교회 안에는 만남의 장소들이 별로 없다. 지하 3층에 휴게실이 있으나, 그 접근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2층 출입구 옆 옥외 정원에 Sitting place가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의 계획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요구가 항상 건축가능 면적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건축가의 역량이 여기까지 미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형태나 계획공간을 디자인하는 것 만큼이나 자유로운 만남의 장소들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또 많은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보인다.

대예배실은 하느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에 그 '장소성'과 '방향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예배실의 내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강단 부분이다. 설교단과 사회단, 장로석, 성가대석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예배 신학적 의미에 따라 회중의 예배를 하느님께 드리는 의식에 잘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성가대석의 경우, 예배의식으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즉, 하느님을 향한 노래이어야 하지만, 이를 듣는 청중에로의 음의 전달기능 또한 중요하기에 그 위치와 방향의 논란이 늘 일어난다. 장석교회는 일반적인 예와 달리 부정형의 대지 때문에 생긴 비대칭의 강단 공간을 훌륭하게 활용하여 성가대를 중앙설교단 우

측 알코브에 배치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회중석을 최대화하기 위해 강단을 극소화하였는데, 중앙에 설교단을 반원형으로 내밀어 비대칭의 전면에 중심성을 강하게 부여하고 설교단 뒤의 화강석 벽을 통해 예배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단 양측에는 옥외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두어 지하 대예배실의 피난과 환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빛의 문제이다.

특히, 카타콤으로 연상되어지는 지하 예배실은 그 지하의 어두움에 대비되는 빛의 연출로 예배의식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개의 옥외 계단으로 인한 광정(光井)과 예배실 중앙 천장의 천창은 효과적으로 빛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예배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조를 유지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재료와 디테일의 사용으로 인해 약간 산만해 보인다. 기둥으로부터 이어지는 천장에 노출된 몇개의 보들과 조명기구의 선들이 천창의 방향과 직교하고 있어 더욱 그렇게 보인다.

대예배실이 예배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강단으로의 시각적 집중을 요구하기에, 오히려 천정과 주위 벽의 디자인이 단순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디자인이 대예배실에 강단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과 하느님을 향한 방향성을 더욱 강조하였으면 좋았을것 같다.

회중석 수를 늘이려는 교회측의 요구 때문이겠지만, 대예배실 중층이 너무 깊어 상당수의 회중은 공간적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임이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특별히 디자인된 설교단과 사회단의 형태는 외부형태로부터 연결된 주제의 디자인으로 매우 참신하다.

외부로부터 대예배실까지의 입구와 진입 과정은 특히 종교건축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속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과정의 물리적 장치는 교회의 입구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대예배실까지는 서로 다른 세계 즉, 세속과 성의 세계사이의 전이 공간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장석교회는 도로에 3개의 입구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어, 차량 출입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른 두개의 입구는 선택의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 중 하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화강석 계단인데,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꺽이고, 출입구 옆에 화단과 작은 마당이 있어 홉인력이 강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쓰여지지 않을 것 같다. 주 출입구는 다른 하나 즉, 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입구인데, 내외부가 과정없이 직접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개의 입구는 지상 교육공간과 지하 예배당 출입동선을 분리하여 기능상 혼잡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며, 특히 전자의 경우 도로로부터 계단 현관홀을 통해 건물 뒷편의 마당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 공간의 단계적 연출을 이루어 내고 있다. 여기서 지하 대예배실로 연결되는 통로는 넓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또한 예배실로의 통로 즉 전이공간이기에는 메말라 있고 산만하다. 이 과정을 거쳐 대예배실 입구에 이르면, 한주일동안 속하여 살고있던 세속의 세계와는 다른 성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과 다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리만 옮겨 앉았을 뿐 별다른 감흥이 다가오지 않는다.

여기서도 세속으로부터 떠나 성의 세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줄 수있는 공간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국의 기독교 건축이라는 과제는 건축가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2천년의 기간동안 서구에서 성장되어 전래된 기독교는 그 전례 의식으로부터 그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서구적 사고의 틀 속에 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근년에 이르러서야 토착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이 건축이고, 건축의 형태이다. 또한 이는 한국 건축의 전통 계승이라는 명제와 맞물려 우리를 자극하고, 고뇌하게 한다.

서구 건축의 역사와 현대 건축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법들이 지난 30여년간 실험되었으나, 아직 누구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한국 역사의 단절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장석교회에서 작가가 보여준 태도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 용기가 놀랄만하다.

우리 건축인들의 건축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그 진지함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한국의 건축계가 그 지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건축이 단지 생존의 수단으로 까지 전락시키고 있는 이 때, 작가의 모험은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자명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긍정과 부정

Affirmative & Negative

金聖雨/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eong-Woo

1

장석교회가 지어졌다. 지어졌다기 보다 나타났다고 하자. 60년대 후반에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어지고 나서 세간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소위 전통논쟁이후 이와 유사한 전통건축의 재현적표현, 또는 그 변형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올때마다 우리나라의 건축계는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 신경과민적인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신경과민이 되어버려서 그런식의 전통논의가 또 들먹거려질 것 같으면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식의 무언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버린 듯한 느낌이다.

그러한 와중에서 전통건축을 그대로 본뜬 집을 짓는 사례는 유명사찰이나 국립공원 등지에서 공중화장실이나 매표소 또는 유물보관소같은 건물을 짓는 경우에나 당연한 듯이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으며 자신의 설계작품에 건축가로서의 운명과 성패를 걸려고하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예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전주시청사의 경우와 같이 근대건축적 덩어리에 한옥적인 애교(?)를 끼워넣은 것같은 사례가 있어서 끼워져 들어 앉아있는 한옥이 애처로와 보이는 기억이 떠오르기는 하며 이와 같이 전통건축의 요소가 근대적 디자인의 장식적 부품 같이 사용된 예는 간혹 있었다.

그러나 장석교회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장석교회의 경우는 살짝 끼워넣은 애교도 아니고 장식적 부품도 아니고 전통건축을 그대로 콘크리트로 지어버리는 일을 과감하게 저질러 버린 것이다. 60년대 지어진 현 민속박물관같은 수법을 사용해서 90년대 후반에 와서 커다란 교회를 지어 버렸다.

어쨌든 일은 저질러졌다. 그것도 관광지의 화장실이나 매표소를 설계하는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잘 알려져있는 중견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지어졌다. 그 건축가는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건물을 비롯해서 비중있는 작품을 작가적 의식을 갖고 설계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저질러진 일에 대한 문제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만든다.

사실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는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되어 지어진 결과로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우리 건축계가 그것을 문제의식이 분명한 비중있는 작가의 이유있는 작품으로서 보다는 그렇게 지어진 결과에 대해 보였던 신경질적 반응이었다. 장석교회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 반응을 누가, 어떻게 보이던간에 하나의 작가의 작품으로서 나타났으며 거기에는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작가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와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판정패했던 싸움에 대해 다시 승부를 걸어온 것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아니면 눈치를 보며 살짝 장식적 부품으로 인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전통복제식 집을 지어놓고 무어라고 떠드나보자는 식의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이 싸움은 승패를 떠나서 해볼만한 싸움이다. 우리의 정신적 상황은 싸움이 없는 고요함보다 논란의 시끌벅적함을 더 필요로 하며 지금의 시대는 끊임없이 자극을 통한 활로모색이 조용한 답습보다 의미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논의는 진부한 논의를 또한다는 식의 거부반응보다 논의의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내용을 계속 살찌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장석교회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고 또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지금까지의 전통논의에서 일관적으로 견지되는 한가지 견해는 직설적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비판의 이유가 무엇이든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비판적 입장은 장석교회에도 어김없이 적용될 것이다. 장석교회의 설계자는 그러한 곱지않는 눈길에 대해 은근히 마음졸이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리 자신을 가지고 저질러 놓은 일일망정 이유가 분명한 다수의 비판에 대해 코웃음치고 스스로의 자신을 고수한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장석교회가 짊어져야하는 비판의 눈길중에서 전통계승의 방법론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은 그래도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건축뿐아니라 모든 문화계에서 전체적으로 앓고 있는 대답없는 질문과 같은 것이기에 장석교회가 대표가 되어 대답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우길 수 있다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논의를 같은 입장과 관점으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건축의 보편적 진실성과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의 폭이 넓지 않다. 예를 들면 건축이 재료의 적합성과 성질을 무시하고 지어질 수 없으며 그러한 무리가 강행되었을 때는 기본적 진실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탑을 전탑이나 석탑으로 번안하더라도 벽돌이나 돌의 성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양식이 나오게 마련인데 나무집을 콘크리트로 지으면서 똑같은 형태로 복제를 한다는 것은 재료처리에서부터 진실되고 정당한 건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건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질문이다. 장석교회의 상부를 장식하는 한옥지붕들은 외부로 부터의 조망용이다. 즉 그 지붕들은 내부공간을 갖는 구조체가 아니라 3층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고 있는

모자들이다. 스라브 편지붕만으로는 재미없게 보이겠기에 씌워놓은 전통모자이다. 다른 모자를 쓰면 모양이 안 어울리겠기에 씌워진 기와지붕 모자이다.

전통건축은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그 내부공간을 쓰기 위해서 지어지지 모자로써 지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장석교회의 기와지붕 모자는 건축의 자체내적 내용에서 요구된 것이기보다는 전통건축을 박제화하여 모양내기로서 씌워놓은 경우가 된다. 그 전통기와 지붕 속에는 내부공간이 없으며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게 계획되어 있다. 그러기에 벗을 수도 없는 모자이고 모자치고 몹시 비싼 모자이다. 이 정도로 기능과 목적이 도외시된 건축이라면 그 건축물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거론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느껴지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아마도 장석교회의 기와지붕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받아들이면서 까지 내세울 자기정당화의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장식'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 기와지붕의 재현이 재료적 적합성과 기능상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고나서도 자기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은 장식이다'라는 주장밖에 남지않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장식은 재료의 사용이 부적합하고 기능적 목적이 없이도 가능하다. 나무잎사귀 모양을 테라코타로 만들어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속에 사람이 쓰지않는 빈공간이 있는 장식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장석교회의 기와지붕은 순전히 건물 밖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과 기능이 없다. 장식이란 것이 본래 밖에서 보기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과 기능이 필요없다. 그리고 장식이란 것은 근대건축의 초기과정에서 심하게 거부반응을 보인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의 역사를 장식의 역사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장식의 뿌리는 깊고 건축의 본질형성에 깊게 참여하여 왔던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장석교회의 기와지붕을 장식으로 보자는 탈출구에 대하여 부정적 선입관을 갖고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 기와지붕모자를 장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설계자 스스로 부터 장식으로 보아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장식이기 보다는 건축물 전체의 구조적 일부이고 장식을 넘어서는 건축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계획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논의된 건축의 진실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회귀되어 대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또 한편 건축가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그 기와지붕을 도대체 장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도 가볍지 않다. 그것을 장식으로 본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장식덩어리가 될지모른다. 장식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장식에 가깝다거나 방법상 장식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표현이 더 쉽게 의미전달을 할 것같다.

재료와 기능, 그래서 장식의 문제에 이르는 논의의 과정을 더 연장시켜서 장석교회의 문제성을 따져 나갈 경우 아마도 다음 주제는 지금의 시대와 갖는 관련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같다. 60년대와 같이 근대건축의 소용돌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에서 지금보다 정신적 방향감각이 불분명한 때가 아니고 서구식 근대화도 어느정도 한계가 보이는 90년대 중반에, 그리고 근대화과정에 100년을 소비하고난 후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할 시점에서 장석교회의 전통에 대한 대응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서 던져주고 있으며 지금의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자기 입장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혹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석교회의 설계자에게 그렇게 직설적인 복제가 아니어도 전통적 분위기를 창출해내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 최소한도 지금의 시대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 건축가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른다. 지금의 상태가 이미 적당한 번안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며 또는 어설픈 번안은 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논의를 전개시키기가 꺼려진다. 재료나 기능의 문제보다 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무슨 번안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하는 식으로 꼬리를 무는 전통계승 논란에 또 한번 손발을 담그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건축의 토착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토착화가 장석교회와 같은 것이냐 하는 논의도 어느정도는 현대적 번안과 그러한 방식의 전통계승 논의와 통한다.

장석교회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직설적인 전통재현의 시도는 이루어져서 끝난 일이다. 차라리 장석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찾아보고 그것과의 대비적 상황에서 앞으로의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향이 더 생산적일 것같다.

3

직설적 복고주의에 대한 거부반응은 나름대로 모두 이유를 갖고 있다. 앞서 얘기한 건축의 재료사용과 기능의 문제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 서양식 근대건축이 소개되고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사용방법이 소개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큰크리트를 사용하여 전통적 건축을 지었을 것이다. 장석교회에서와 같이 조립식 서까래를 만들어 다른 골조와 연결시켰을지 모른다. 기와지붕의 인습이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상황에서 인습에 따른 변형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만약 콘크리트로 3~4층짜리 건물을 지을 줄 알았다면 그 구조물 위에 가능하면 한옥 지붕을 씌우기 원했을

것이다. 나무든 콘크리트이든 기와 지붕의 친숙함을 실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무집을 재료를 바꾸어 짓는다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하며 그렇게 죄악이 될 것도 없다. 단지 콘크리트로 한옥을 짓는 일이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지속이 되었다면 그러한 방법과 재료에 맞는 한옥의 양식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가 없었다.

콘크리트로 재현되는 전통적 건물에 대한 거부반응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전세계적으로 목조건물이 보편적이었던 문화권에서 근대이후 콘크리트로 재료를 바꾸어 재현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직설적 복고주의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그러한 비판적 시선에는 이미 서구식 근대건축의 건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러한 건축관에서 볼때에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배경적 선입관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전통논의가 시작된 것이 이미 한국 건축계가 서구식 건축을 추구하는 한가지 방향으로 매진하던 시기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으로 고정되어버린 때라고 보아야 한다. 20세기 후반의 한국 건축계는 서구식 건축관에 대한 식민적 추종을 해왔던 기간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정신적 오염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기간이며 그러한 오염의 안경을 두껍게 쓰고 복고풍의 건축을 비판했음도 관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거부감없이 직설적으로 복고된 건축을 자연스럽게 짓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역사(北京驛舍)건물은 그러한 예중에 성공적인 것으로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다. 거기서도 기와지붕은 단순히 외관을 위한 첨가물이다. 또는 더 가깝게 북한에서는 콘크리트로 재현된 전통식 건축이 더 많이 눈에 뜨인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복고적 건물에 대하여 거부적이었듯이 거부적이어서 좋았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즉 직설적 복고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은 다분히 시대적이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더 거부적인 것은 우리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서구식 근대건축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염된 안경을 쓰고 재료나 기능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류에게 있었던 건축행위에는 서구식 근대건축관보다는 훨씬더 폭넓고 다양한 건축이해의 방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양의 건축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19세기까지의 서양건축사는 어떻게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베껴먹고 살아온 역사이다. 그쪽도 고전적 모델의 재현과 변환으로서 자신의 건축사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20세기에서도 끊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복고적 건축설계의 방법론이 보존주의자들의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학문적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보존적 설계방법론은 커녕 전반적인 거부적 시각에 밀려 복고적 설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설적으로 복고되는 것이 원칙에 있어서 나쁠것도 틀린것도 아니라는 사고의 전환을 우리는 오히려 필요로 한다. 모든 건축을 그렇게 짓자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 직설적으로 재현되는 쪽의 건축도 당연히 살아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다양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태리같이 건축역사의 흔적이 무겁게 남아있는 나라에서는 현대건축이 그 무거운 역사에 적정하게 반응하느라고 서구의 다른지역 현대건축과는 사뭇 다르게 진전된다. 우리 건축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복고주의적인 역사대응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주관없이 방만하게 나타나는 현대건축이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건축역사전통이 이태리만 못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복고적인 건축도 역사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제대로 했던 과정이라도 우리에게 있었어야 했다.

음악에서는 국악이 국민적으로 아직 향유되고 있고 그림에서는 한국화가 서양화에 밀리지 않고 감상되는데 건축물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한국건축계가 책임져야할 문제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설적으로 복고되는, 또는 그러한 방향의 건축적 시도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다고 보아져야 할 것이다. 복고적인 건축물도 더 활발히 살아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러한 건축물이 더 많이 지어져서 나쁠 것없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경향에 대해 우리는 너무 겁을 먹었거나 배짱이 없었다. 또는 정당한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주관이 약했다고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복고적 건축을 찬양하자는 것도 아니며 복고주의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복고적 경향이 새삼 고무적인 것으로 주장될 필요도 없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능한 건축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장석교회와 같은 경우가 전통계승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장석교회는 전통의 문제로서 풀어야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형식도 없는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으며 많은 다양한 건축의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다. 안좋은 것이 있다면 장석교회와 같은 건물이 아니라 안좋게만 보이게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두꺼운 안경일지 모른다.

4

앞의 글에서 장석교회와 같은 경우에 대한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부정적인 견해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앞의 논지에서는 장석교회와 같은 방식의 복고적 재현은 문제(Problem)로 보아졌고 뒤의 논지에서는 문제가 아닌것(No Problem)으로 설명되었다.

이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같이 피력될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는 것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린 것일 수도 있다. 두개의 상반성에서 우리가 보아야하는 것은 복고적 재현이라는 대상의 문제로서 접근되기보다 그러한 대상을 보는 우리들 자신을 보는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렇게 보는 우리들의 정신적 위상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하고 긍정할만한 이유가 그 대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상에 있기 전에 대상을 그렇게 보게끔 된 우리들 자신에 있다.

지금 건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전통건축에 대해서도 또 서양식 현대건축에 대해서도 긍정하기 보다는 부정하는 쪽으로 치우쳐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전통사회가 마감되고 서구식 근대화를 향하여 치달아왔던 지금의 역사적 위치에서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전통사회로 다시 회귀할 수가 없다. 또 서양식 근대 문화에로의 추종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도 없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우리의 의식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도 서구식 근대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니다"하는 식의 부정적 선입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전통건축의 그대로의 재현은 곤란하다"하는 것은 바로 전통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의 표현이고, 또 "서양건축의 유행을 추종하는 것도 곤란하다"하는 것도 서양근대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대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이 없다.

전통과 전통건축을 부정할 수 밖에 없고 서양식 근대와 근대건축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정신적 위치이다. 직설적인 복고주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실체역시 "지금 우리가 옛날식 한옥을 똑같이 지어놓고 살수가 없는 상황인데 콘크리트로 그 것을 복제해놓으면 어쩌자는 것이냐"하는 절실한 상황인식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하는 쪽은 "콘크리트 박제일망정 전통논의를 떠나서라도 그것은 하나의 미학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것이며 서양건축유행의 무분별한 복제보다는 차라리 낫다. 그리고 전통재현적 건축도 다양한 흐름 중의 하나로서 살아있어야만 하는데 왜 비판일변도로만 가는가"하는 것 엮시 시대적 아픔을 품고 있는 절규이다.

우리는 전통사회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전통적 목조건축을 다시 짓고 살 수는 없다. 또 서구식 근대건축의 취향과 건축관을 언제까지나 좇아만 갈 수도 없다. 그 두가지를 부정하는데서 우리의 정신적 위치를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은 인정하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전통으로의 회귀와 서구의 추종이 모두다 불가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두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의 전부이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있는 문화적 자산을 기초자본으로 해서 장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가지를 자산으로 갖고있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흔치않은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그 두가지를 부정하기보다 긍정해야 한다.

전통회귀와 서구추종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부정되어야함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또 한편 그것을 자산으로해서 재창조해야만 하기 때문에 긍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 두가지중 한가지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부정하는 심리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래도 그 두가지를 강하게 긍정하고 포용해야 한다. 두가지 상반된 내용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포용한다는 것이 상호갈등적 혼동을 초래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긍정하고 포용해야만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의 상황속에서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의 자기 당혹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것도 OK이고 저것도 OK이다"로 긍정해놓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적 전통과 서구적 근대라는 그 거대한 두가지 문화적 덩어리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적 유기체로서 탄생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창조력을 결집해야하는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가지 모두 언제까지나 부정만 하고 있는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전통과 서구식 근대가 평행선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듯한 상황은 역사 진전의 위치가 아직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져야 하며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문화간의 충돌, 동화, 재구성의 과정이 수백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문화적 재창조단계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고, 준비과정에 필요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서구의 근대 모두를 부정하기보다 강하게 긍정해야한다. 더 충실하게 양쪽 모두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객관화하며 그 내부구조의 숙지를 통해서 재창조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부정해야하는 것은 부정한다는 태도이다. 우리가 부정만 하고 있는 동안 서구문화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에서 조화의 자양분을 빼내어 자신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 전통도 긍정하고 서구식 근대도 긍정해야 한다. 전통건축의 재현도 긍정하고 서양건축의 추종적 시도도 긍정해야 한다. 그런 것 모두가 우리를 살찌우는 영양분으로 섭취해야만 복고적 재현만이 아닌 전통재현도 가능하고 서구식 추종만이 아닌 근대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장석교회가 지어졌고 거기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시비는 있을 수 있다. 앞서 제기되었던 것과 같이 부정은 부정의 논리대로 긍정은 긍정의 논리대로 모두 일리가 있다. 그 부정과 긍정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하는 것은 대상속에서 찾아지는 부정.긍정의 이유가 아니라 긍정부정을 그렇게 하게끔 하는 우리들 자신의 내면적 상황이다.

우리가 진정 부정해야하는 것은 표면적인 긍정.부정의 논리에 휩싸이는 것이다. 장석교회는 근대적 기술과 재료로 지어지되 전통적 한옥의 모양을 본떠서 지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과 긍정을 하게끔하는 우리의 문화역사적 상황은 긍정되어야한다. 전통과 근대를 동시에 그러안고 미래를 기다리며 창조적 저력을 축적해가야 하는 우리의 상황자체는 긍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긍정은 과거의 전통과 지금의 근대 모두가 긍정되는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60년대 있었던 민속박물관에 대한 전통논쟁을 다시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때는 지금보다 문화적 혼동속에서 방향감각을 찾기가 더 어려웠던 때였고 지금은 서구식 근대화가 시효를 이미 상실해가고 있는 때이다. 지금의 우리는 60년대 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우리식 전통과 서구식 근대에 대해 긍정적 수용과 객관적 비판을 통해 자기 입장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더 많이 요구받고 있다.

장석교회를 보는 문제의 핵심은 그것에 대한 긍정.부정의 논리보다도 우리전통과 서양근대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입장이다. 두가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비롯된 장석교회에 대한 긍정.부정을 하기보다 전통 근대에 대한 긍정의 입장에서 장석교회같은 예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근본적 문제는 우리들 자신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우리 전통과 서양근대가 부정되면 우리를 자신이 부정된다. 두가지의 부정에서 두가지의 긍정으로 돌아서서 21세기를 맞이해야만 한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늦게 근대화과정을 거침으로해서 우리보다는 전통부정의 정도가 약하다. 즉 자신들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하는 듯이 수용되고 흡수되어진 상태에서 근대문화를 만드는데 자신있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근대화과정의 시점에서는 지금의 중국보다 우리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긍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종류의 부정적 태도를 더이상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서서 수용하고 포용해야하며 그것이 늦어지면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 엮시 위축된다.

부정하는 태도는 부정하는 대상에 부정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이기 보다는 부정하는 것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같은 상황인식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대상에서 다른 이유를 찾기보다 상황인식을 새롭게하는 것이다. 장석교회에 대한 부정.긍정보다도 그것을 그렇게 보게끔 만든 우리 시각의 부정적 타성을 부정하고 긍정적으로 바꾸자. 희망적 미래는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교회건축에 있어서 신앙과 문화

Religion and Culture in Architecture of Korean Church

李勇男/ 장석교회 목사
by Lee Yong-Nam

어느 신학교 교수를 찾아 온 외국의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교수는 열심히 여러 교회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소감을 묻는 그 교수에게 외국 신학자는 아직 한국 교회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본 것은 다 외국의 건물이지 한국의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 교수는 이제야 우리도 한국적인 한국의 교회를 보여 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분명한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녹아 들어있는 우리의 문화가 접목된 성전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 장석교회가 이루었다는 것은 더 없이 큰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라는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예배한다는 종교적인 목적이 분명한 건물이다. 그래서 성전의 원형인 성막공사에서부터 다분히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 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구약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예배하는 인간들의 신앙내용이 함께 녹아 심오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건물로 발전되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동이 쉬운 텐트식의 성막 또는 희막이라는 이름의 예배처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문화를 총

망라한 종합예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 그들의 문화로 하느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은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서 먼저 카타콤이라는 박해시대를 거쳐 고딕식이니 르네상스식이니 또는 바로크식이니 하는 당시의 상황과 문화의 형식을 따라 형태를 이루어갔다.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도 어언 한 세기를 넘어 선교 2세기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교회로 점점 자라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요, 부러워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는 활기차게 성장하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회 건축에서만 아직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

교회당을 건축했다 하면 외국 잡지에서 본듯한 건물이 여기 저기에서 세워져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분명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루어 낸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가 녹아 이룬 아름다운 문화가 있지 않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느님의 뜻은 우리글, 우리말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의 문화로 하느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리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서 장석교회 당회는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우리 식의 건물을 세우기로 방향을 정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먼저 건축을 위하여 설계에 들어가기 전 몇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문화를 농축시킨 건물로 설계한다는 것이요, 두번째는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부품정도는 부득이한 경우 외제를 쓰지만 철저히 국산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세번째는 모든 구조물에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를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장석교회당은 두개의 건물이 팔각정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형식이다. 팔각정은 본래 쉼터를 의미하는 곳이다. 기독교 신앙은 피곤한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참 쉼을 얻는다는 뜻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팔각정은 피곤한 인간들에게 참 쉼을 주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두 건물은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성전 뒤에는 높은 종합 구조물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첨성대를 현대화한 것으로 신약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의 문화와 접목을 시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성전은 지상 3층과 지하 4층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느님의 완전수를 3으로 하고 인간의 완전수를 4로 하여 이 둘의 합인 7을 가장 완전한 수로 여긴다. 지상 3층은 하느님의 수를 나타내고 지하 4층은 흙에서 나온 인간의 수를 나타내 기독교 신앙의 최고치를 이미지화 하여 지은 건물이다.

내부에 들어가면 대예배실을 지하에 두어 신앙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던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는 카타콤을 연상하게 하였다. 내부 양쪽으로 여섯 기둥씩을 두어 12기둥이 있는 예배실을 만들었고 강대는 전통적인 우리의 선이 보이도록 디자인하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쉽게 우리의 것을 느끼도록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앉은 의자에도 태극 무늬를 넣어 우리의 선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였고, 강단도 우리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성벽과 성투를 현대화한 형식으로 만들었다.

강단은 비록 우리의 성을 연상하게 하고 올림픽 공원에 있는 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역시 깊은 신앙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교회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긴 물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뜻하던 건물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독교의 참 신앙을 이해하고 열과 성을 다해준 좋은 건축가를 만난 것이 첫번째 행운이었고, 또 어떤 설계도면이라도 손색없이 이루어내는 훌륭한 시공업체와 손을 잡은 것이 또한 우리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3만명을 초청하는 특별전도 예배를 드렸다. 지난 6월 25일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1부에서 8부까지 대 성전이 가득차는 감격을 얻게 되었다.

6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 있을 때 다른 교회 교역자 한 분이 들어 오셔서 자기가 찾아 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외국인이 다른 그의 친구에게 한국에 가 볼만한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외국인이 장석교회를 말하기에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여 찾아 왔는데 소문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돌아갔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도 세계를 향하여 떳떳하게 내놓을 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우리 문화가 접목된 건물들이 특히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비전문가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직 우리 문화를 충분히 소화한 건축이 이 땅에 없다는 생각이다. 장석교회당의 시도가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교회 건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